

# 날렵한 외관 묵직한 안정감... 포효하는 배기음에 마음 빼앗겨

## ■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디젤' 시승기



기자가 탄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디젤 차량이 녹음이 짙어가는 무등산 일주도로를 따라 힘차게 내려오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콰트로포르테 디젤 스펙

- 배기량(cc): 2987
- 길이x폭x높이(mm): 5265 x 1950 x 1475
- 최고출력(hp/rpm): 275/4000
- 최대토크(kg.m/rpm): 61.2/2000~2600
- 변속기: ZF 자동 8단 변속기
- 최고시속(km): 250
- 복합연비(km/ℓ): 10.9
- 가격(만원): 1억4590(개소세 인하금액)

### 대시보드·콘솔...이테리 장인의 손길 15개 스피커서 울리는 사운드 웅장 275마력 강력한 출력에 제동력 완벽 주행 안전장치 장착 탑승자 안전 최우선

진짜 놀란 건 스포츠모드에서였다. 디젤의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스포티함까지 구현했기 때문이다. 스포츠모드를 누르자 포효하는 듯한 배기음이 가슴을 설레게 한다. 가히 마세라티스러웠다. 휘발유인지 착각이 될 정도로 멋스럽게 뿜어내는 배기음이 감격스럽기까지 했다. 새로운 마세라티 액티브 사운드 테크놀로지(Maserati Active Sound Technology)가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배기음 덕분이다.

브레이크 성능도 확인하고 싶었다. 한참을 쭉 달러나다가 급제동을 해 보았다. 2t의 묵직한 대형세단을 어찌 이렇게 잘 세우는지 정말이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모델은 기존 콰트로포르테 GT와 콰트로포르테 S Q4모델보다 가볍고 콤팩트한 제동장치로 기존과 동일한 제동거리 35.5미터(100~0 km/h 기준)에 도달한다.

전륜에 장착된 345×28 mm 디스크와 4 피스톤 알루미늄 고정 캘리퍼, 후륜에 장착된 320×22 mm 디스크와 플로팅 캘리퍼(부동형 캘리퍼)로 이와 같은 완벽한 제동력을 구현해냈다.

이 밖에도 최신의 안전 시스템을 통해 탑승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강도 바이-제논(Bi-Xenon) 헤드라이트가 최적의 조도로 도로를 비추주고 코너링 시 자동으로 램프를 안쪽으로 비추는 회전 기능을 발휘해 야간 운전시 안전성을 높였다고 한다.

최신 안전 시스템인 마세라티 주행 안전장치(Maserati Stability Program, MSP)는 미끄러운 노면에서 스스로 백만분의 일 초 만에 엔진 토크를 줄이고 차량의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 브레이크를 작동시킨다. 여기에 총 여섯 개의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어 탑승자를 모든 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963년 최초로 하이퍼포먼스 카에 레이싱 엔진을 탑재해 탄생한 명차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첫 탄생 이후 50년이 지난 2013년 1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인 6세대 콰트로포르테는 오랜 역사를 계승한 모델로 더 고급스러워진 디자인과 함께 최첨단 기술들이 적용되어 전 세계 자동차 관계자들과 마니아들의 주목을 받았다.

전통 세단 콰트로포르테의 장점을 그대로 잇고 최고의 그랜드 투어러로서의 우아함과 기술, 파워를 갖춘 모델 '콰트로포르테 디젤(Quattroporte Diesel)'이 무등산 광주의 품에 안겼다.

시승을 위해 첫 대면한 '놈'은 엄청난 귀티를 뿜어내며 다가왔다. 중후함이 묻어난다. 기존의 길고 파워풀한 차랑 전면부는 물론, 마세라티 특유의 불룩한 수직 바가 자리한 타원형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했다.

또 나란히 놓인 세 개의 사이드 에어 아울렛과 풀 LED 테일 라이트, 일체형 리어 스포일러로 이어지는 옆 모습을 탄탄한 곡선이 자아내는 강인한 남성미와 함께 우아함이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을 선보였다.

차 내 인테리어는 이것이 명품이구나 하는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었다.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이테리 장인의 손길로 마감됐다. 수작업으로 완성된 폴트로나 프라우(Poltrona Frau) 가죽 시트와 스티칭, 고급 우드 대시보드, 센터콘솔, 도어의 매끈한 곡선과 날렵한 디자인은 인테리어에 럭셔리한 분위기를 한층 더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무광 알루미늄으로 테두리를 두른 8.4인치 마세라티 터치 컨트롤 시스템(Maserati Touch Control System)이 내장돼 각종 인포메이션 시스템과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편리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작돼 있었다.

오디오 역시 결박이었다. 세계적인 음향기기 전문업체 바우어스 앤 윌킨스(Bowers & Wilkins)의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해 대시보드, 도어, 뒷좌석 선반 등에 설치된 총 15개의 스피커를 통해 1280 와트(watt) 앰프의 출력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차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운드 세계를 선사한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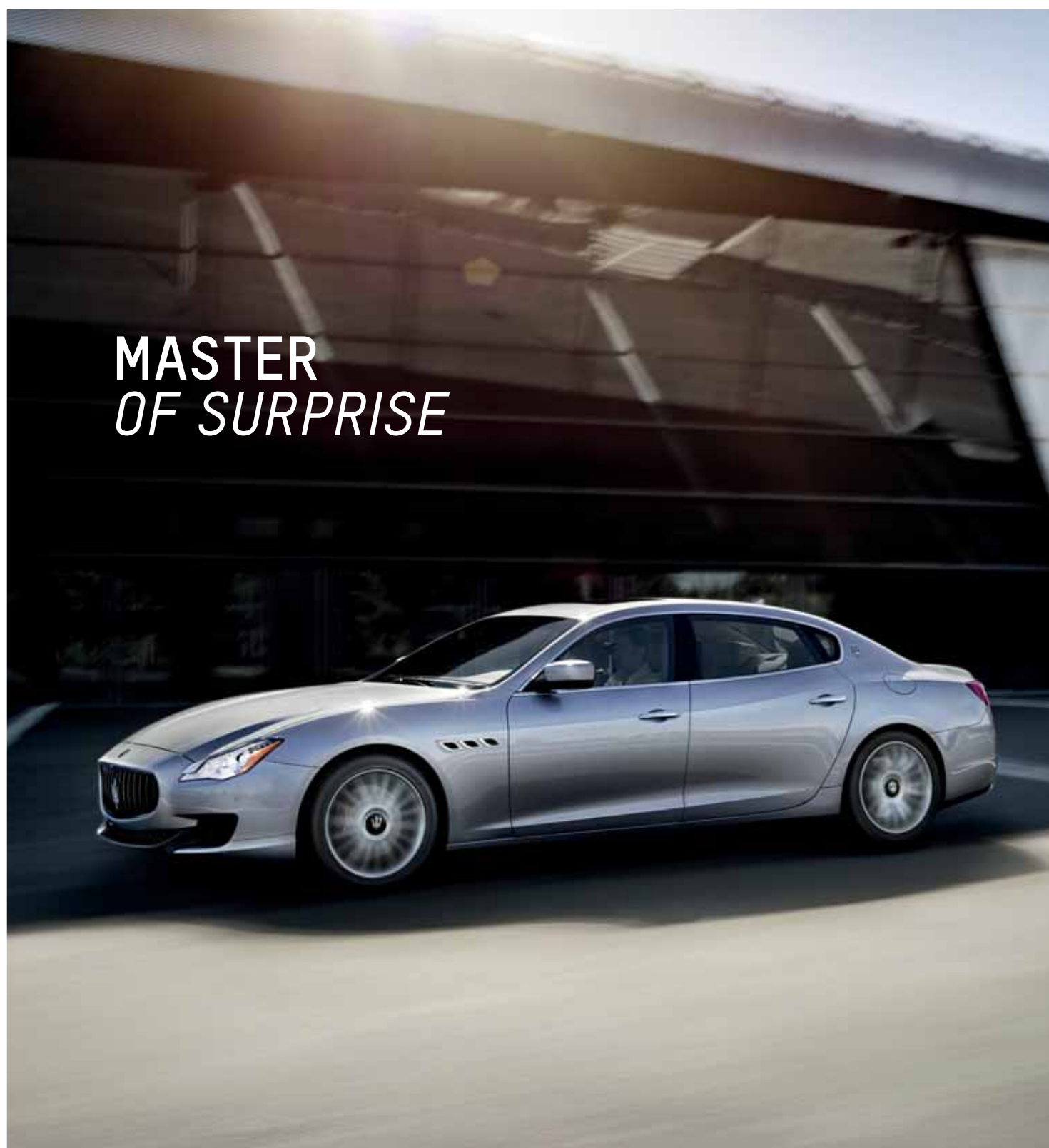
경쾌한 엔진음과 함께 무등산을 향해 출발했다. 대형 세단답게 편안했다. 스티어링은 속도에 따라 부드럽기도 묵직하기도 했다. 크기가 있다보니 민첩함이 부족해 운전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이내 적응됐다.

순환도로에 들어서자 가속페달을 지국이 밟아 가속능력을 시험해봤다. 예상대로 새로운 3000cc V6 디젤 터보 엔진을 탑재해 무리없이 가속도를 높여주었다.

275마력의 강력한 출력으로 제로백(0~100 km/h)이 6.4초에 불과하다. 10초안에 최고속도는 250 km/h에 이르는 퍼포먼스를 발휘했다.

이번 장착한 V6 디젤 터보 엔진은 콰트로포르테의 최신형 V6, V8 기술인 엔진에서 완벽한 성능을 자랑했던 탁월한 기술적 특성이 그대로 적용되어 마세라티만의 뛰어난 퍼포먼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연비를 제공한다는 것이 제조사의 설명이다.

특히 2000바의 연료 분사시스템과 가변 터보차저(VGT), 연료의 연소를 최적화시켜 주는 연료분사장치까지 장착돼 효율을 더욱 높였다.



# MASTER OF SURPRISE

### MASERATI QUATTROPORTE.

세상의 많은 것들은 시간에 의해 그 빛을 잃어가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존재는 세월이 흐를수록 가치가 더해집니다. 결코 시들지 않는 가치와 철학으로 매 순간을 아름답게 질주하는 콰트로포르테, 경이로움의 결정체가 되어 당신의 인생을 빛냅니다.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Quattroporte GT: V6엔진, 배기량 3,799cc, 자동 8단, 공차중량 2,040kg, 5등급, 복합연비: 6.2km/ℓ (도시 5.1km/ℓ, 고속도로: 8.3km/ℓ), 복합CO<sub>2</sub>: 230g/km  
Quattroporte S Q4: V6엔진, 배기량 2,979cc, 자동 8단, 공차중량 2,090kg, 5등급, 복합연비: 7.6km/ℓ (도시 6.3km/ℓ, 고속도로: 10.2km/ℓ), 복합CO<sub>2</sub>: 238g/km  
Quattroporte Diesel: V6엔진, 배기량 2,987cc, 자동 8단, 공차중량 1,945kg, 4등급, 복합연비: 11.5km/ℓ (도시 10.2km/ℓ, 고속도로: 13.0km/ℓ), 복합CO<sub>2</sub>: 175g/km  
\*표준적 시승방법: 경계수로 정속주행, 급발진, 급가속 금지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표준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www.maserati.co.kr

### 마세라티 광주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전시장: 062)376-8181 서비스센터: 062)451-8027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문현로 192(쌍촌동)

## ‘임금체불 해소’ 원청기업도 팔 걷었다

### 고용부, 서남권 조선업 대상 교육...현대삼호중, 동반성장펀드 운영

고용노동부 목표지정과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 등 지역 원청기업들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는 조선업 경기불황 등으로 조선업체가 밀집한 목포·영암·해남 등의 임금체불이 3년 연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19일 고용노동부 목표지정에 따르면 지난 2월부 터 조선업체 대표 등 246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중이며, 각 업체들도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대표 윤문균)은 그동안 임금체불에 따른 협력업체 직원의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협력회사 납품대금 전액 현금지급을 비롯한 81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운영 등에 나서고 있으며, 설과 추석 명절에는 자금 결제일을 앞당겨 협력회사들이 명절을 앞두고 제때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중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또 지역 내 조선업체들과 공동으로 협력업체와 계약 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해당 협력업체에 대해 제재하는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협력업체에 대한 정기평가를 연 2회에서 매월로 변경해 임금체불에 대한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분기별 업체 간담회 시 목표지정과 함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별도 교육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윤문균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는 “협력업체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도입한 제도 등은 타 사업장에도 모범사례가 돼 향후 임금체불 예방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암=문병성기자 moon@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11.36 (+2.26)

↓ 금리 (국고채 3년) 1.50% (-0.01)

↑ 코스닥 701.68 (+6.34)

↓ 환율 (USD) 1136.30원 (-13.90)